

KIA '포수 F4' 안방 쟁탈전... 관건은 수비력

'부상 복귀' 이정훈 합류... 한승택·김민식·백용환과 주전 경쟁 공격력 갖췄지만 기복 심해...맷 감독 "경기 운용·투수 리드 중요"

KIA타이거즈의 안방 경쟁 2라운드 시작됐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KIA 스프링캠프 포수 명단에 지난 15일 이정훈이 포함됐다. 백용환, 김민식, 한승택으로 구성됐던 기존 포수조에 이정훈이 합류하면서 '4포수'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모든 선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앞으로 캠프가 진행되면서 포수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4명이 있으면 투수들 피칭 진행하는 부분도 수월하고 휴식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4포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훈은 지난해 플로리다 캠프와 시범경기에서도 지켜봤다. 왼손 옵션으로 좌타자 대타 요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며 "지난해 재활 마치고 2주 정도 훈련하면서 봤었다. 무리 없이 잘했고, 비시즌에도 준비 잘해왔다. 지금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KIA는 26일 라이브 피칭에 맞춰 속도를 올리고 있다. 16일 투수 A조가 세 번째 불펜피칭에 돌입하는 등 점점 투구수와 시간이 늘어날 것 인 만큼 포수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포수들 입장에서는 역할도 많아지고, 경쟁도 본격화되는 셈이다. 올해도 '안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이다.

지난 시즌 KIA는 한승택, 백용환, 이정훈으로 개막 엔트리를 구성했다.

'예비역'이 돼 상무에서 돌아온 이정훈은 화끈한 방망이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시즌 중반 무릎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다.

김민식은 시작은 늦었지만 강렬한 모습으로 시즌을 열었다.

7월 13일이 돼서야 시즌 첫 경기에 나선 김민식은 멀티히트와 함께 5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승택은 기복을 보이기는 했지만 9개의 홈런

을 날리는 등 '한방'도 보여주면서 시즌 내내 엔트리를 지켰다. 백용환은 시즌 막판 대타 자원으로 많은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역시 1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수를 겸비한 '특급 포수'의 부재는 아쉽지만, 이들 포수들은 각각의 매력으로 경쟁에 나선다. 윌리엄스 감독은 '수비력'을 우선 강조한다.

그는 "우선은 포수들에게 수비가 가장 중요하다. 우타자 옵션인 한승택, 백용환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김민식도 콜업 됐을 때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지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비"며 "투수들이 선호하는 포수도 있다. 경기 운영 능력, 투수들을 어떻게 끌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효과를 봤던 '3포수' 체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지난해 KBO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이른 8월 18일부터 확대엔트리를 적용했다. KIA는 한승택, 백용환, 김민식 '3포수' 체제를 가동하면서 타선의 운용 폭을 넓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3포수 체제'에 대해 "엔트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지난해에는 내야에 부상자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3명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또 확장 엔트리가 일찍 적용되기도 했다"며 "3명의 포수를 두면 생각하는 게 편해진다. 지난해 3포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대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었다. 주자가 있는 득점권 상황에서 포수를 교체하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포지션에 따른 엔트리도 고려해야 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다"며 "포수 기용도 그때 그때 상황, 매치업에 따라서 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김민식(왼쪽부터), 한승택, 이정훈, 백용환이 16일 불펜피칭이 끝난 뒤 대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준영 "좌완 고민 해결사는 나"

강타자 대비 체력 키우고 슬라이더·직구 스피드 끌어올려 정명원 투수 코치도 '주목'

힘 붙은 이준영이 "무조건 막겠다"며 2021 시즌 각오를 밝혔다.

KIA 타이거즈에서 '좌완'은 오랜 고민이다. 특히 좌완 불펜진은 귀한 자원이다. 지난 시즌에도 하준영이 팔꿈치 수술로 이탈하면서 대부

분의 시간 이준영이 홀로 불펜을 지켰다.

올 시즌 신인 이이리, 장민기 그리고 예비역 김유신까지 새로운 좌완 자원이 늘었지만 일단 이들은 선발 후보다. 그만큼 올 시즌에도 승리를 잇기 위해 이준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명원 투수 코치도 "눈에 띄는 좌완으로 이준영이 있다"며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준영은 "지난 시즌 힘이 많이 붙었고, 슬라이더와 직구 스피드가 올랐던 게 잘된 것 같다"며 "올 시즌에도 똑같이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느낀 게 있다. 스피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힘이 바탕이 돼 구위가 좋아야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강하게 던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적인 힘을 키워 타자들과의 파워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게 이준영의 이야기다.

이준영은 힘을 키우기 위해 스피드, 순발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제주도에 마련된 선수형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준영은 "순간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트레이닝을 많이 했고, 캠프가 도움이 많이 됐다. 전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페이스를 올리는 단계인데 공도 잘 채지고, 스피드도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확실한 '좌타자 스페셜리스트'가 되

기 위해 스피드를 올린 이준영은 투심도 익히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 생각보다 볼넷과 피안타율이 높았다. 올해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볼넷 주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힘 있게 초구부터 승부하려고 한다"며 "뭉뚱 직구 활용하고 투심을 연습하고 있다. 지난해 직구와 슬라이더만 던지다 보니까 우타자 상대하는 법을 까먹었다는 생각도 했다. 대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투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드는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무엇보다 좌타자에 나가니까 최대한 안 맞으려고 하겠다. 볼넷, 피안타율을 낮추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47이닝 던지고 방어율은 4.13"

美 스포츠통계사이트, 텍사스 투수들 기대 성적 소개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한 양현종(사진)이 새 시즌 빅리그에서 47이닝, 평균자책점 4.13 정도를 소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구단의 새 시즌 전망을 예상하면서 투수들의 기대 성적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양현종을 선발 투수로 분류하면서 47이닝, 9이닝당 탈삼진 8.9개, 9이닝당 볼넷 2.9개, 9이닝당 피홈런 1.3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평균자책점은 4.13, 수비무관투구(FIP) 4.22, WAR(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 0.9, 인플레이 타구 타율(BABIP) 0.289의 기록을 점쳤다.

대부분의 세부 지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거의 대다수 지표가 팀 선발 투수 평균 예상치보다 낫다.

다만 이닝 수치가 문제다. 양현종은 카일 김슨(172이닝), 조던 라일스(149이닝), 아리하

라코헤이(141이닝), 데인 더닝(131이닝), 마이클 폴티네비치(122이닝), 콜비 알라드(66이닝), 카일 코디(56이닝·이상 예상치)에 이어 팀 내 8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빅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현종은 최근 텍사스와 스포링 계약(MLB와 마이너리그 신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계약)을 했다. 그는 초청 선수 신분으로 텍사스의 MLB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한편 미국 매체 디에스레틱은 16일 양현종이 텍사스 선발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텍사스 구단이 6선발 체제 등 다양한 묘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KBO리그에서 지난해 170이닝을 던진 양현종이 건강할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세계 114위 카라체프 '무명의 반란'

호주 오픈 테니스 예선 통과 선수로 21년만에 메이저 대회 4강

이슬람 카라체프(114위·러시아)가 예선 통과 선수로는 21년 만에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카라체프는 16일 호주 오픈 테니스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800만 호주달러·약 686억원) 9일째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그 리그르 디미트로프(21위·불가리아)에게 3-1(2-6 6-4 6-1 6-2) 역전승을 거뒀다.

올해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호주오픈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카라체프는 2000년 윈블던의 블라디미르 볼치코프(벨라루스) 이후 21년 만에 예선을 거쳐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선수가 됐다. 특히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예선



통과 선수가 4강에 오른 것은 1977년 밥 길티던(호주) 이후 올해 카라체프가 무려 44년 만이다.

카라체프는 또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자신의 메이저 대회 본선 데뷔 무대에서 남자 단식 4강까지 오른 첫 번째 선수가 됐다. 그의 세계 랭킹 114위는 2001년 윈블던에서 당시 125위였던 고란 이바니세비치(크로아티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메이저 남자 단식 4강에 오른 기록이다.

카라체프는 이어 열리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 경기 승자와 4강에서 만난다.

예선 통과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른 사례는 아직 없다. 카라체프는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 예선에 9차례 도전했으나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 10번째 도전인 이번 대회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는 중이다. 올해 28살인 그는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보다 한 등급 낮은 챌린저를 주 무대로 삼아왔다. 지난해 111위가 자신의 최고 랭킹이고 투어 대회에서는 2회전인 16강에 세 차례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연합뉴스